

## 동성결혼 합법화 반박을 위한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

### [1] 남성 동성애자는 에이즈(HIV)를 전파시키는 고위험군임

#### (1) 에이즈 관련 국내외 논문이 남성 동성애자를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선택함

서울대 보고서는 남성 동성애 집단이 추정 에이즈 감염인의 71.3%를 차지하였다.<sup>1)</sup>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Infectious Diseases)에서 발행한 보고서인 IASR(Infectious Agents Surveillance Report)도 남성동성애집단(MSM) 간의 에이즈 바이러스(HIV-1) 유행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아시아(일본, 한국 포함)도 예외는 아니라고 명시하였다.<sup>2)</sup> 미국 논문도 남성 동성애자 간의 에이즈 바이러스 유행은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기술하였다.<sup>3)</sup>

#### (2)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인의 약 93%가 남성이며, 최근 99.9%가 성관계로 감염되므로,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즉 남성 동성애로 감염됨을 쉽게 알 수 있음

2013년 말 기준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존 에이즈 감염인 중 남성이 92%이고, 여성은 8%이다. 2006년 이후 에이즈 감염경로가 확인된 4811명 중 4806명(99.9%)가 성관계이고, 수직감염이 3명(0.06%), 마약주사 공동사용 2명(0.04%)이다.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이고, 매년 신규 감염인의 약 93%가 남성이고, 2006년 이후 99.9%가 성관계로 감염된다는 사실로부터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즉 남성 동성애로 감염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고 남녀가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전체 신규 감염인의 85%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감염되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더 감염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신규 감염인의 72%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감염됨을 알 수 있다. (첨부자료 1 참고)

#### (3) 감염인 본인의 진술에 근거한 한국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남성 에이즈 감염인의 43%가 동성애로 감염되지만,<sup>4)</sup> 감염인들이 동성애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서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이 43%보다 크다고 봄

2006년 인제대학교 보고서는 감염인의 남녀 성비가 10이 넘기에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이 질병관리본부 통계보다 많아야 합리적이라고 하였다.<sup>5)</sup> 질병관리본부도 여성 감염인이 8%이고, 이성간 성접촉으로 판단했던 것이 동성간 성접촉으로 정정되는 경

1) 양봉민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보고서, 2004년 11월, p11.

2) IASR Vol. 34 p. 72-73: 2013년 3월호.

3) van Griensven F, *et al.*, (2009) The global epidemic of HIV infection among men who have sex with men, Current Opinion in HIV and AIDS 4, 300.

4) 한국질병관리본부, 2011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p20.

표1. HIV 감염 내국인 성별, 연령별 감염경로(1985~2011년).

5) 인제대학교, HIV/AIDS 예방 및 대응 국가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2006년 12월.

우가 빈번하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여건 및 동성애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성애로 감염되었음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하였다.<sup>6)</sup> (첨부자료 2 참고)

#### (4)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 남성에 비해 100배 이상 큼

국내 남성 동성애자 비율을 0.5%로 가정하고, 남성 감염인의 43%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감염되었다고 가정하면,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 남성에 비해 148배가 크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감염된 10대 청소년의 58%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감염되었다.<sup>7)</sup> 10대 동성애자 비율을 0.5%로 가정하면, 10대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275배가 크다. (첨부자료 3 참고)

따라서 동성애는 에이즈에 감염될 확률이 높은 매우 위험한 성행위이다.

#### (5) 보건복지부와 전문가들은 국내 에이즈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확산된다고 봄

보건복지부가 2011년에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라고 명시되어 있다.<sup>8)</sup>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권관우 상임부회장도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부분인 1단계라고 판단하였다.<sup>9)</sup> 서울시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교수는 에이즈는 남성 동성애자에서 주로 유행하는 질병이라는 것은 여러 정황 상 100% 확실하며 에이즈 전문가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말하였다.<sup>10)</sup>

#### (6)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전 세계적인 통계가 있음

2007년 유엔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에 160만 명의 에이즈 감염인이 있고 절반이 동성애로 감염되었다.<sup>11)</sup> 캐나다에서 신규 남성 감염인의 75%가 MSM이고,<sup>12)</sup> 프랑스 2011년 남성 감염인의 65%가 동성애 때문이다.<sup>13)</sup> 방콕에서 2010년 신규 감염인 50%가 남성동성애집단(MSM)이고, MSM 중 31%가 감염되었다.<sup>14)</sup> 의학전문지

6)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동성애우호정책반대 국민대책위원회 질의서에 대한 답변, 2015.

7) 손숙미 전 국회의원 블로그(18대 국회의원) (2009-09-2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nsm2351&logNo=50088141396>;

한국질병관리본부, 2011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p20

표1. HIV 감염 내국인 성별, 연령별 감염경로(1985~2011년).

8) 국민일보, 2015년 6월 18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562405&code=61221111&cp=nv>

9) 세계일보, 2013년 11월 27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11/26/20131126004874.html?OutUrl=naver>

10) 국민일보, 2015년 6월 24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31295&code=23111111&cp=nv>

11) 부산일보, 2007년 11월 21일.

12) <http://mitr.tistory.com/479>.

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0655>

랜싯에 따르면 MSM의 에이즈 감염이 여전히 증가하고, 미국, 스페인,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MSM의 HIV 유병률은 약 15%이다.<sup>15)</sup> 잉글랜드 공공보건국 케빈펜튼 교수는 MSM의 에이즈 감염이 증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sup>16)</sup> 2012년 유엔에이즈 보고서에 의하면 MSM의 HIV 감염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첨부자료 4 참고)

**\*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부인하는 몇 가지 주장에 대한 반론**

**(1)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곳은 아프리카이며 그 이유는 가난 때문임**

(반론) 한국의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가 성관계, 즉 동성애 때문이므로, 가난이 원인인 아프리카와 비교하면 안 된다.

**(2) 에이즈는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고 동성애와는 무관함**

(반론)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지만, 동성애자 집단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다.

1985~1992년 한국 국립보건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질 확률이 5.5%으로 동성애자 백 명당 5~6명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sup>17)</sup> 위의 통계는 20년 전의 것이며 지난 10년 동안에 에이즈 감염인이 4배 증가하였으므로, 지금은 동성애자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추정한다.

**(3) 에이즈는 성관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됨**

(반론) 에이즈는 성관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감염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국 내에서는 2006년 이후 에이즈 감염경로가 확인된 사례 중 99.9%가 성관계로 감염되었다.

**[2] 동성결혼 합법화는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와 세금의 증가를 초래함**

**(1) 최근 국내 에이즈 감염인, 특히 청소년 에이즈 감염인이 급증하고 있음<sup>18)</sup>**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이 2003년 2,843명에서 2013년 11,566명으로 4배 증가하

14) <http://mitr.tistory.com/775>.

15) 연합뉴스 2012년 7월 2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0/0200000000AKR2012072012810009.HTML>

16) <http://blog.naver.com/pshskr/220126352239>

17) 양봉민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보고서, 2004년 11월, p9~10.

18) 질병관리본부, 2013년 HIV/AIDS 신고 현황.

였고, 내국인 15~19세 남성 신규 감염인이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내국인 20~24세 남성 신규 감염인이 2000년 15명에서 2013년 145명으로 10배 증가했다. 내국인 남성 신규 감염인이 예전에는 30대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많으며, 내국인 남성 신규 감염인의 10대 증가율이 20대 증가율보다 더 크다. (첨부자료 5 참고)

- \* 감염인 본인의 진술에 근거한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증가한 국내 10~19세 누적 감염인의 58%가 동성애 때문이다.  
→ 감염인의 진술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58%보다도 훨씬 높다고 추정된다.

### (2) 국내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것임

에이즈 논문들은 에이즈 감염인 수를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된 수의 2~3배로 추정하므로, 국내 에이즈 감염인 수는 대략 2~3만 명으로 추정된다. 국내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는 국가 세금으로 전액 지급되고 있다. 에이즈 약이 다국적기업에 의해 제조되어서 매우 가격이 높으므로, 에이즈 감염인의 증가는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 (3)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의 에이즈 감염인의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큼

영국 인구는 약 6,400만 명인데 2013년에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인은 약 11만 명(0.17%)이며,<sup>19)</sup> 미국 인구는 약 32,100만 명인데 2013년에 생존하는 에이즈 감염인은 약 110만 명(0.34%)이다.<sup>20)</sup>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 젊은(13~24세)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인의 94~95%가 동성애로 감염되었다.<sup>21)</sup>

한국 인구는 약 5,100만 명인데 2013년에 생존하는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은 8,662명(0.017%)이므로,<sup>22)</sup> 영국과 미국의 에이즈 감염 비율은 한국의 약 10~20배이다.

### \*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됨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에는 영국과 미국의 수준으로 동성애자의 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 또한 에이즈 감염인이, 특히 청소년 에이즈 감염인이 영국과 미국의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영국과 미국처럼 한국의 에이즈 감염인도 10~20배 정도 증가하여서, 에이즈 감염인의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세금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19) <http://www.nat.org.uk/HIV-in-the-UK/HIV-Statistics/Latest-UK-statistics.aspx>

20) <http://kff.org/hiv/aids/fact-sheet/the-hiv-aids-epidemic-in-the-united-states/>

21) [http://www.cdc.gov/hiv/pdf/statistics\\_surveillance\\_Adolescents.pdf](http://www.cdc.gov/hiv/pdf/statistics_surveillance_Adolescents.pdf)

22) 질병관리본부, 2013년 HIV/AIDS 신고 현황 p9.

[표 3] 2013년 현재 HIV/AIDS 내국인 성별, 연령별 현황.

### [3]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님

#### (1) 동성애는 유전이 아님

동성애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므로, 유전이 될 수가 없다. 아기를 낳아야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

유전자 돌연변이로 생기는 유전질환은 지극히 소수에게 (0.25% 이하) 나타나고, 모든 유전질환자를 합쳐도 전체 인구의 1% 정도이다. 동성애가 돌연변이로 생겼다고 보기에는 서구의 동성애 빈도(2~3%)가 너무 높다.

동성애가 유전자에 의한 현상이라면 유전자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으므로, 동성애자 비율은 나이가 들어도 감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고, 50대 동성애자의 비율은 20~30대의 약 절반으로 감소한다.<sup>23)</sup>

청소년기에 큰 도시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고, 시골에서 자랐으면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낮다.<sup>24)</sup> 동성애 형성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 서구에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오해가 퍼진 이유

1993년에 해머 등은 남성 동성애가 유전자군(Xq28)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하였고,<sup>25)</sup> 서구 언론은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대서특필하였다. 이것이 동성애는 유전이라는 오해를 퍼트린 연구결과이다.

1999년에 라이스 등은 Xq28 내의 유전자들을 분석하여 남성 동성애와 관련이 없다고 발표하였다.<sup>26)</sup>

2005년에 해머를 포함한 무스탄스키 등이 더 많은 사람을 조사하여 남성 동성애와 Xq28 유전자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론내렸다.<sup>27)</sup> 그리고 1993년 결과와 다른 이유를 2005년 논문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

23) Laumann, E. O. et al. (1994). 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4) Laumann, E. O. et al. (1994). 앞의 책; Frisch, M and A. Hviid (2006). "Childhood family correlates of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arriages: a national cohort study of two million Dane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5(5), 533.

25) Hamer, D. H. et al. (1993). "A linkage between DNA markers on the X-chromosome and male sexual orientation." Science 261. 321.

26) Rice, G. et al. (1999).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 665.

27) Mustanski, B. S. et al. (2005). "A genomewide scan of male sexual orientation." Human Genetics 116. 272.

## (2)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

= 동성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

일란성 쌍둥이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모든 선천적인 영향을 똑같이 받으므로, 만약 선천적으로 동성애가 결정된다면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비율이 높아야 한다.

< 2000년 이후의 세 번의 대규모 조사 결과 >

	켄들러 등	베일리 등	랑스트롬 등
발표년도/국가	2000년/미국	2000년/호주	2010년/스웨덴
조사대상자 수	1,512명	3,782명	7,652명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 비율	18.8%	남성 11.1% 여성 13.6%	남성 9.9% 여성 12.1%

\* 일란성 쌍둥이의 낮은 동성애 일치비율(약 10% 내외)은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결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 [4] 동성애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되는 것이 아님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되고 동성애자들은 형성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이므로, 동성애는 정상이며 도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성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1) 동성애가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음

→ 유전자, 두뇌, 태아기의 호르몬 등에 관한 몇 개의 연구들이 동성애가 유전이며 선천적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오해가 되었고 매스컴에 의해 확산되었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않음이 밝혀졌다.

(2) 동성애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

→ 동성애가 형성되는 과정에 의지가 몇 % 관여하고, 의지와는 상관없는 요인이 몇 % 관여하는지를 현재 과학 수준으로 알 수 없다.

(3)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요인들에 대하여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반응함

→ 인간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라, 모든 행동 양식의 형성에 어느 정도 자신의 의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동성애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된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다.

## [5] 동성애는 어린 나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님

\* 동성애자들은 어린 나이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론

### (1) 모든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동성과의 친밀감을 갖는 시기가 있음

모든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동성과의 친밀감을 갖는 시기가 있으며, 사춘기가 되면 이성에게로 관심이 옮겨간다.

정신분석적 설명에 따르면, 프로이트의 인격발달 이론에서 약 6-10세를 잠재기(latency period)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성에 대한 리비도(관심)는 잠재되고 동성끼리 어울린다. 즉, 잠재적 동성애 기간이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나오면서 리비도가 이성애로 옮겨간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상적인 정신성발달(psychosexual development)이라고 본다. 그러나 잠재기 이전의 인격발달에 문제가 있거나 잠재기에 문제가 있으면, 잠재기 상황이 연장되어 사춘기 이후로도 고착(fixation)이 되거나, 사춘기 이후로 넘어가더라도 심한 좌절을 겪어 잠재기로 퇴행(regression)을 하면, 그 결과가 동성애라고 본다.

### (2)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어린 나이의 기억을 회상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모든 사람들이 어린 나이에 동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그러한 기억을 일부러 회상하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그러한 기억을 회상하여 어린 나이부터 동성애 성향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동성애는 어린 나이에 형성되었으므로, 즉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형성되었으므로 인정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라고 본다. 또한 설문조사를 할 때에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처음 인식한 나이를 적게 답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 청소년의 마음에 있는 동성애 성향은 매우 유동적임

2007년 미국 ADD-Health survey에 따르면, 16세에 양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라고 답한 청소년이 일 년 후에 대부분 이성애자로 바뀌었다.<sup>28)</sup>

이처럼 청소년이 느끼는 자신의 성적지향은 쉽게 바뀔 수 있다.

청소년의 마음에 있는 동성애 성향이 강화되어 성인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이다. 즉, 동성애 성향을 의지적으로 거부하여 정상적인 성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동성애 성향을 받아드려서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강화되어 성인 동성애자가 될 수도 있다.

→ 청소년기의 동성애 성향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28) Savin-Williams R. C. and G. L. Ream (2007). "Prevalence and stability of sexual orientation components during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Archives of Sexual Behaviour* 36. 385.

## [6] 국내 동성애자 비율은 매우 적음

### (1) 킨제이는 동성애자 비율을 과장하기 위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함

킨제이는 1948년에 ‘남성의 성적행동’, 1953년에 ‘여성의 성적행동’을 출판했다.<sup>29)</sup> 그는 양성애자였고, 근친상간, 어린이, 동물과의 성행위 등 모든 성행위를 옹호하고, 이성애가 성적행동의 표준이 아님을 보이기 위해 조사를 하였다. 그는 책에서 미국 남성 13%가 동성애 성향을 가지며, 여성 동성애자는 7%라고 주장했으며, 동성애자 비율을 과장하기 위해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남성매춘부, 성범죄자, 소아애호자, 노출증환자 등을 표본의 1/4를 차지하게 했다.<sup>30)</sup>

### (2) 최근 대규모 조사 결과는 킨제이 결과가 과장되었음을 나타냄

와이트헤드가 정리한 1988년부터 2010년 사이의 결과를 요약하면, 동성애자는 대략 0.8%이고 양성애자까지 합치면 2.4%이다.<sup>31)</sup> 최근의 대규모 조사 결과도 위와 비슷하다. 2003년 캐나다 공중위생조사(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에서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가 0.7%이었고,<sup>32)</sup> 2006~2008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실시한 가족성장전국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에서 동성애자가 1.4%, 양성애자가 2.3%이었으며,<sup>33)</sup> 2010년 영국 통계청 인구조사에서 동성애자가 1%, 양성애자가 0.5%이었다.<sup>34)</sup> 이 결과로부터 킨제이의 결과가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한국의 동성애자 비율은 서구 사회의 1/5 정도임

1996년 한국에이즈연맹 보고서에서 적극적 동성애자는 대략 1만 명이였다.<sup>35)</sup> 1995년도 인구조사의 결과를 이용하면 15~49세 남성인구의 0.07%이다. 2003년 한국성과학연구소에서 서울 남성을 조사한 결과, 동성애자가 0.2%, 양성애자가 0.3%, 동성애 경험이 있는 비율이 1.1%이었고,<sup>36)</sup> 2011년 한국성과학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울 남

29) Kinsey, A. C., W. B. Pomeroy, and C. E. Martin (1948).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Kinsey, A. C., W. B. Pomeroy, C. E. Martin, and P. H. Gebhard (1953).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W. B. Saunders.

30) Reisman, J. A. and E. W. Eichel (1990). *Kinsey, Sex, and Fraud*. Lafayette, LA: Lochinvar-Huntington House.

31) Whitehead, N. and B. Whitehead (2010). *My Genes Made Me Do It! Homosexuality and the scientific evidence*. Lafayette, Louisiana: B. K. Huntington House, p43-45.

32) <http://statcan.gc.ca/daily-quotidien/040615/dq040615b-eng.htm>.

33) Chandra, A., W. D. Mosher, C. Copen, and C. Sionean (2011). "Sexual Behavior, Sexual Attraction, and Sexual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Data From the 2006-2008 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 National Health Statistics Reports, 36.

34)

[http://www.theguardian.com/news/datablog/2010/sep/23/gay-britain-ons?uni=Article:in%20body%20link#\\_](http://www.theguardian.com/news/datablog/2010/sep/23/gay-britain-ons?uni=Article:in%20body%20link#_)

35) 연합뉴스 1998. 1. 9일자 “국내 동성애자 11만명 추정”

성의 1.1%와 여성의 0.3%가 동성애 경험이 있었다.<sup>37)</sup> 에이즈 감염인의 대다수가 동성애로 인하여 감염된다고 추정되므로, 에이즈 감염인의 지역 분포로부터 동성애자의 지역 분포를 추측할 수 있다. 서울 남성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2배 정도 높으므로,<sup>38)</sup> 전국 동성애자 비율은 서울의 동성애자 비율의 절반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03년 결과를 이용하여 남성 동성애자는 0.1%, 남성 양성애자는 0.15%로 추정된다. 그런데, 에이즈 감염인이 2003년에 비해 현재 네 배로 증가하였기에, 동성애자들도 두 배 정도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남성 동성애자는 0.2%, 양성애자까지 합치면 0.5%로 서구 사회의 1/5 정도로 추정된다.

## [7]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는 이유

### (1) 동성애는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임

남자와 여자는 성기관을 갖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연의 순리이다. 남녀의 성기관 주위에는 성행위를 피부 마찰 없이 할 수 있도록 음모(陰毛)가 있으며, 여자의 질 내에는 성행위를 부드럽게 하도록 하는 매끄러운 분비물이 나온다. 성행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정(射精)이 되어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을 만들고 후손이 태어나게 된다. 반면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하는 성행위는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 (2)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 성관계를 하는데, 항문은 성기관이 아니고 배설기관임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있는 불결한 곳인 항문에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가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임은 너무 자명하다. 특정한 기관의 모든 부분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기에,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에 맞다. 그런데 기관의 정해진 특정한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서 그 행위가 정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3) 항문 성관계는 수많은 보건의 문제를 일으킴

항문 성관계는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거의 예외 없이 행하지만 신체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항문 성관계는 항문파열, 항문출혈, 다양한 성병 감염, 점액의 과잉분배, 화농성의 고름, 여러 합병증 유발, 항문과 직장의 고통, 장 경련, 항문/직장의 궤양유발, 항문소양증, 직장의 탈장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항문 성행위를 한

36) 양봉민·최운정 (2004)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보고서, p9.

37) <http://www.sexacademy.org/xe/issue/280257>.

38) 1985~2011년의 국내 누적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발견 당시 주소지를 보면, 전체 감염자 8542명 중 3204명(37.5%)이 서울이었으며, 2010년 인구조사 통계를 보면, 총 남성 인구 2417만 명 중 480만 명(19.9%)이 서울에 거주하였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의 92%가 남성이므로, 서울 남성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분들이 나이가 들면 괄약근이 손상되어 빨리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대변을 흘리는 증상이 심각해진다. 항문의 상처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는 편모충, 각종 세균(이질균, 임질 등), 바이러스(B형 간염, 단순포진,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매독균(스피로헤타), 장의 여러 병원균 등이 있다.

항문 성관계로 항문 사마귀(일명 곤지름),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요도염),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증, 인유두종 바이러스(자궁경부암 유발인자), 타입 B C 간염, 임질, 매독 그리고 에이즈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위의 질병 중 몇 가지는 정상인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동성 간 성관계를 가지는 그룹에서 압도적으로 발병률이 높다.

#### (4) 구강-항문 성관계 및 피스팅(Fisting)으로 말미암는 문제점

남성 동성애자에게서는 수인성 전염병인 장티푸스와 같은 병원균이 구강-항문 성관계 혹은 항문성교 후에 행하는 구강성교 등으로 인하여 항문에서 구강으로 직접 전달된다. 구강-항문 성관계로 캄피로박터(식중독 유발), 임질, 살모넬라(식중독 유발), 엔타모에바히스토리티카(설사균), 다른 장 병원균의 감염 등의 감염이 촉진되고, A형 간염, 시겔라(세균성 이질균), 요충, 장편모충, 지아르디아 람블리아(장 기생충), 엔트로비우스 벌미쿨라리스(장 기생충) 등의 장 전염 병원체가 남성 동성애자에게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점과 질병들은 동성애가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므로 발생한 결과라고 본다.

남성 동성애자들은 구강성교 또는 항문성교 도중에 전립선을 자극하여 쾌감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손이나 주먹을 항문 안으로 집어넣는 행위, 즉 피스팅(Fisting)을 한다. 이는 항문 성관계보다 더 위험하며, 직장과 괄약근 등을 크게 훼손한다.

결론적으로 동성애자의 항문 성관계는 미화되어서는 안 되는, 정말 불결하고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며, 보건 의료적으로 매우 '위험한 성 행태'이다.

## [8] 동성애자들의 불행한 삶

동성애자의 삶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미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남성 동성애자의 교제는 주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깨어지며, 남성 동성애자 교제의 60%는 일 년 이내 깨어지고, 대부분 여성 동성애자 교제는 3년 이내에 깨어진다.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의 사귀는 평균기간이 대략 2.5년이며, 5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드물다. 동성애자의 관계는 이성애자보다 2배 정도 성(性)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sup>39)</sup>

39) Laumann, E. O., A. Paik, and R. C. Rosen (1999) "Sexual dysfunction in the United States: Prevalence and predictors." *JAMA* 281. 537.

동성애자들이 에이즈가 발견된 후에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받고 친구들이 에이즈로 죽는 것을 보면서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그들의 성행위가 중독임을 나타낸다.<sup>40)</sup> 남성 동성애자 모임에 가면 성에 대한 이야기에 몰두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나이가 들면 가족이 없어 외로움에 시달린다.<sup>41)</sup> 결혼하지 않은 나이가 든 동성애자는 더 이상 매력도 없어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모임에서 환영받지 않으며 자녀도 없고 가족도 없는 미래가 너무 쓸쓸하게 느껴진다.

1998~2001년 사이에 진행된 4개의 독립적인 연구결과에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보다 최소 2배 더 알코올에 의존하고, 남성 동성애자가 남성 이성애자보다 3배 더 자살을 시도한다.<sup>42)</sup> 에이즈 환자의 암발생 위험도는 일반인에 비해 20배이다.<sup>43)</sup> 남성 동성애자 수명은 남성 이성애자에 비해 25~30년 짧고, 알코올중독자보다도 5~10년 짧다.<sup>44)</sup> 이렇게 짧은 수명을 가지는 이유는 동성애자들이 가지는 에이즈와 여러 질병 때문이다.

## [9] 동성애는 치유가 가능함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동성애자들을 그대로 용납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자들에게도 여러 등급이 있다. 동성애 행위를 몇 번 경험한 사람도 있고, 깊이 빠져 중독이 된 사람도 있다. 술을 가끔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알코올 중독환자가 있는 것과 같다. 동성애 행위를 몇 번 경험한 사람은 쉽게 빠져 나오지만, 중독 상태가 된 사람은 끊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끊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성애 행위를 정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이 주장은 알코올중독을 끊기 어렵다는 이유로 알코올중독자에게 계속 술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과 같다. 또한 동성애를 끊기가 어렵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끊겠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하면, 비버 박사는 20년 조사 후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바뀔 가

---

40) Pullin, R. D. (1995) "Homosexuality and Psychopathology." in *Collected papers from the NARTH Annual Conference*, California: NARTH.

41) Kuyper, L. and T. Fokkema (2010) "Loneliness Among Older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The Role of Minority Stres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9. 1171.

42) Whitehead, B. (2003). *Craving for Love*. 이혜진 역 (2007). 『나는 사랑받고 싶다』. 서울: 웰스프링, p158.

43) Galceran, J., R. Marcos-Gragera, M. Soler, A. Romaguera, A. Ameijide, A. Izquierdo, J. Borrás, S. L. de Sanjose, and J. Casabona (2007) "Cancer incidence in AIDS patients in Catalonia, Spain." *European Journal of Cancer* 43(6). 1085.

44) MacNutt, F. S. (2006). *Can Homosexuality be Healed?* 문금숙 역 (2006). 『동성애 치유될 수 있는가?』. 서울: 순전한 나드, p35.

능성은 30~50% 된다고 했고,<sup>45)</sup> 임상심리학자 크론마이어 박사는 80%의 동성애 남성과 여성이 치료 후 만족스러운 이성애자로 변화됐다고 밝혔다.<sup>46)</sup>

동성애가 유동적임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로는, 2006년에 로사리오 연구팀은 성장과정을 따라가면서 조사한 결과, 동성애자 57%는 동성애자로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변화되었다고 발표했다.<sup>47)</sup> 2003년에 뉴질랜드 천 명 어린이를 조사한 결과, 21~26세 사이에 1.9%의 남성이 이성애로부터 떠났으며, 1%는 이성애로 돌아왔다고 발표했다.<sup>48)</sup>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을 운영했던 이요나, 동성애자 단체 대표였던 리처드 코헨, 레즈비언 잡지 비너스(Venus) 편집장이었던 찰렌 코트란 등도 치유되었다. 동성애에서 치유받은 자들이 동성애에서 벗어나려는 자를 돕는 전동성애 단체로는 교사 및 학생을 돕는 NEA Ex-Gay Educators Caucus, 영국의 True Freedom Trust, 스웨덴의 Medvandarna, 노르웨이의 Til Helhet, 덴마크의 Basis, 핀란드의 Aslan, 벨기에의 Different, 네덜란드의 Onze Weg 등이 있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동성애는 치유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동성애 옹호자들이 동성애가 치유 불가능한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며 끊고자 하는 의지를 오히려 약화시킨다.

## [10] 미국의 여러 협회 성명서는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고 정치적인 결정임

1993년~1999년에 미국의 여러 협회는 동성애 치유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성명서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의 다수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결정이다. 1973년에 미국정신의학협회가 동성애를 질병목록에서 제외시킨 것은 동성애자의 압력과 로비에 의해서였다. 그 후 미국의 동성애자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큰 압력단체로 성장하였고, 언론, 교육,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은 동성결혼까지 합법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에 속한 협회 성명서를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되며 우리 입장에서 따져 보아야 한다.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을 수 있지만, 한국에는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다.

---

45) Bieber I. and T. B. Bieber (1979). "Male Homosexuality."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24. 416.

46) Kronemeyer R. (1980). *Overcoming Homosexuality*.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47) Rosario, M., E. W. Schrimshaw, J. Hunter, and L. Braun (2006). "Sexual identity development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consistency and change over time." *Journal of Sex Research* 43. 46.

48) Dickson, N., C. Paul and P. Herbison (2003). "Same-Sex attraction in a birth cohort: prevalence and persistence in early adulthood."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6. 1607.

발표한 곳이 동성애에 대한 전문가 단체이므로 그 성명서를 신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한 주장은 성명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닐 때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단순히 다수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결정은 그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으로부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문란한 외국의 성명서를 무조건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 [11] 동성애 커플이 가지는 문제점

### (1) 동성애 커플의 관계 지속 기간이 이성애 커플에 비해 매우 짧음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2001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연구결과는 66퍼센트의 부부관계는 10년 이상이며 50퍼센트의 부부관계는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왔고,<sup>49)</sup> 미국 통계국의 2002년도 연구에 의하면 1970년에서 1974년 사이에 결혼한 70.7% 여성들은 결혼 10주년을 지냈고, 57.7%는 20년 이상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sup>50)</sup>

반면에, 2004년 Gay/Lesbian Consumer Online Census는 7,862명의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커플 중에서 그 관계가 12년 이상인 커플은 15퍼센트에서 그쳤고, 20년 이상인 커플은 5퍼센트에 불과했다.<sup>51)</sup> 2003년 AIDS 잡지의 남성 동성애자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안정된 동반자의 관계의 길이는 1.5년이였다.<sup>52)</sup>

### (2) 동성애자의 일생 동안 성 파트너 수는 매우 많음

2583명의 성인 동성애자들을 연구한 Journal of Sex research의 조사에서 동성애자가 일생동안 가지는 성적 파트너의 최빈수 범위가 101~500명이었고, 10.2~15.7%의 동성애자들은 501~1000명의 파트너와 관계를 맺었고, 다른 10.2~15.7%는 천 명 이상의 파트너들과 성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sup>53)</sup>

---

49) Matthew D. Bramlett and William D. Mosher, "First Marriage Dissolution, Divorce and Remarriage: United States," *Advance Data,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May 31, 2001): 1.

50) Rose M. Kreider and Jason M. Fields, "Number, Timing, and Duration of Marriages and Divorces: 1996" *Current Population Reports, P70-80, U.S. Census Bureau, Washington, D.C.* (February 2002): 5.

51) "Largest Gay Study Examines 2004 Relationships," *GayWire Latest Breaking Releases*, [www.glcensus.org](http://www.glcensus.org).

52) Maria Xiridou, et al., "The Contribution of Steady and Casual Partnerships to the Incidence of HIV Infection among Homosexual Men in Amsterdam," *AIDS* 17 (2003): 1031.

53) Paul Van de Ven et al., "A Comparative Demographic and Sexual Profile of Older Homosexually Active Men," *Journal of Sex Research* 34 (1997): 354.

### (3) 동성애 커플은 이성애 커플에 비해 부부의 정절 유지가 매우 낮음

Journal of Sex Research에 실린 884명의 남자와 1288의 여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설문조사는 기혼 남성 중 77퍼센트와 기혼 여성 88퍼센트가 그들의 결혼 서약을 지켰다고 밝혔다.<sup>54)</sup> 반면에,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헌신된 관계를 유지한 동성애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한 명의 파트너와만 관계를 유지하는 남성의 비율은 25퍼센트에 불과했다.<sup>55)</sup>

- 첨부 1. 신규 에이즈 감염자 비율로부터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계산  
2. 이성간 성접촉으로 에이즈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3. 남성 동성애자와 일반 남성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 비교  
4.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국내외 통계  
5. 최근 동성애로 인하여 급증하는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자

---

54) Michael W. Wiederman, "Extramarital Sex: Prevalence and Correlates in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Sex Research* 34 (1997): 170.

55) Ryan Lee, "Gay Couples Likely to Try Non-monogamy, Study Shows," *Washington Blade* (August 22, 2003): 18.

## 첨부 1

### 신규 에이즈 감염자 비율로부터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계산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2013년 말을 기준으로 한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은 총 10,423명이며, 현재 8,662명이 생존하고 있다. 그 중에 남성은 7,978명(92.1%)이고, 여성은 684명(7.9%)이다.

연도별 내국인 남성 감염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6년은 89.4%(93명/104명), 1997년은 85.6%(107명/125명), 1998년은 86%(111명/129명), 1999년은 86%(160명/186명), 2000년은 88.6%(194명/219명), 2001년은 89.3%(292명/327명), 2002년은 91.4%(363명/397명), 2003년은 94.2%(502명/533명), 2004년은 91.3%(557명/610명), 2005년은 94.1%(640명/680명), 2006년은 91.7%(687명/749명), 2007년은 94.3%(698명/740명), 2008년은 93.2%(743명/797명), 2009년은 92.4%(710명/768명), 2010년은 93.5%(723명/773명), 2011년은 93.1%(827명/888명), 2012년은 93.1%(808명/868명), 2013년은 93.4%(946명/1013명)이었다. 따라서 남성 감염자의 비율이 90% 이상이며, 최근에는 대략 93%라고 볼 수 있다.

혈액제재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이후, 수혈에 의한 감염은 2006년 이후 보고된 사례가 없다. 현재는 거의 100% 성 접촉에 의해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누적 에이즈 감염자 중 92%가 남성이며, 최근의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대략 93%가 남성이라는 자료로부터,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가정>

전체 감염자 =  $M$ , 남성 감염자 =  $0.92 * M$  (전체 감염자의 92%)

여성 감염자 =  $0.08 * M$  (전체 감염자의 8%)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하는 확률 =  $p$ , 남성 감염자가 이성애를 하는 확률 =  $1-p$

여성 감염자가 이성애를 하는 확률 =  $1$  (여성은 이성애만 한다고 가정)

1년 동안 감염자가 다른 사람에게 에이즈를 감염시킬 확률 =  $c$  (남녀가 같다고 가정)

<결과>

$$\text{신규 남성 감염자} = c \cdot (0.92 \cdot M \cdot p + 0.08 \cdot M) \cdots \textcircled{1}$$

$$\text{신규 여성 감염자} = c \cdot 0.92 \cdot M \cdot (1-p) \cdots \textcircled{2}$$

$$\text{전체 신규 감염자} = c \cdot M \cdots \textcircled{3}$$

$$\text{신규 감염자 중 남성 비율} = \textcircled{1} / \textcircled{3} = c \cdot (0.92 \cdot M \cdot p + 0.08 \cdot M) / c \cdot M = 0.92 \cdot p + 0.08$$

신규 감염자의 93%가 남성이므로,

$$0.92 \cdot p + 0.08 = 0.93 \rightarrow p = 0.924$$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하는 확률이 92.4%

$$\text{동성애로 감염되는 신규 남성 감염자} = c \cdot 0.92 \cdot M \cdot p \cdots \textcircled{4}$$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 \textcircled{4} / \textcircled{1} = c \cdot 0.92 \cdot M \cdot p / (c \cdot 0.92 \cdot M \cdot p + c \cdot 0.08 \cdot M)$$

$$= 0.92 \cdot p / (0.92 \cdot p + 0.08) = 0.914 \text{ (위에서 구한 } p = 0.924 \text{ 를 삽입했음)}$$

신규 남성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91.4%

전체 신규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

$$= \textcircled{4} / \textcircled{3} = c \cdot 0.92 \cdot M \cdot p / (c \cdot M) = 0.92 \cdot p = 0.92 \cdot 0.924 = 0.85$$

전체 신규 감염자의 85%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

위에서 여성은 이성애만 한다고 가정하였는데, 만약 여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한다고 가정하면, 여성이 여성에게 감염시키고, 남성에게 감염시키는 비율이 감소하므로 남성이 남성에게 감염시키는 비율, 즉 남성 간의 동성애 비율  $p$ 가 증가한다.

<결론>

전체 누적 에이즈 감염자 중 92%가 남성이며,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93%가 남성이면,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하는 비율이 92%이며, 전체 신규 감염자의 85%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된다.

신규 감염자의 성비만 보아도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만약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많이 감염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 위의 수치가 조금 감소한다.

예로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더 감염을 시킨다고 가정하면,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할 확률은 91.8%이며, 전체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78.2%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 더 감염을 시킨다고 가정하면,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할 확률은 91.2%이며, 전체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72.3%이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3배 정도 더 감염을 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남성 감염자가 동성애를 할 확률은 90% 이상이고  
전체 감염자 중 동성애로 감염되는 비율은 70% 이상이다.

한 번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될 확률이 0.1~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며, 70% 이상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감염된다는 사실은 국내에서 동성간 성접촉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신규 에이즈 감염자의 성비로부터 대다수의 감염자들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감염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첨부 2

### 이성간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누적 HIV 감염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확인된 6,962명 중 이성간 성접촉은 4,173명(59.9%), 동성간 성접촉은 2,732명(39.2%), 수혈·혈액제제 46명(0.7%) 등으로 나타났다.<sup>56)</sup> 남성의 경우에는 감염경로가 확인된 6,393명 중 2,732명(42.7%)가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서였다. 2011년 결과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동성간 성접촉 결과를 2012년부터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염경로가 확인된 남성 감염인 중에서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통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은 51.5%(246명/478명), 2005년은 49.8%(224명/450명), 2006년은 47.9%(210명/438명), 2007년은 36.6%(171명/467명), 2008년은 44.9%(191명/425명), 2009년은 44.9%(209명/465명), 2010년은 41.1%(221명/538명), 2011년은 45.3%(218명/481명)이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꾸준히 남성 감염인 중에서 40~50%가 동성애로 감염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의 통계에 의하면 이성간 성접촉이 동성간 성접촉보다 많다. 하지만, 위의 수치는 본인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므로, 실제로 동성애로 말미암아 감염된 비율은 첨부 자료 3에서 구한 것처럼 70% 이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질병관리본부에 제출된 2006년 인제대학교 보고서는<sup>57)</sup> ‘이성간 성접촉이 동성간 성접촉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지만 감염인의 성비가 10.0이 넘는 점을 생각할 때 보고과정에서의 오류가 상당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남성동성애 경험이 있는 감염인이 동성애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을 가능성이 있고, 성관계시 수용적 위치에 있는 여성이 더 높은 감염위험을 갖기 때문에 이성간 성접촉이 전체 감염경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면 여성 감염인이 현재보다 더 많이 보고되어야 합리적인 결과가 된다. 또한 여성 감염인이 거의 모두가 이성애에 의한 감염을 보고하고 있지만 그들의 연령(30~40대)이 비교적 높고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대부분 성매매

56) 한국질병관리본부, 2011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p20.

표1. HIV 감염 내국인 성별, 연령별 감염경로(1985~2011년).

57) 인제대학교, HIV/AIDS 예방 및 대응 국가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2006년 12월.

종사자가 아니고 보통의 주부들로서 남편에 의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2013년 통계에서도 누적 여성 감염인 분포와 2013년 신규 여성 감염인 분포에서 30대, 40대, 50대 감염인의 수가 10대, 20대 감염인의 수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 감염인이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보통의 주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04년 서울대학교 보고서는<sup>58)</sup> 여성 HIV 감염인의 26%는 성매매 여성으로, 37%는 남성 양성애자의 여성 파트너로, 37%는 성매매 여성에 의해 감염된 남성의 여성 파트너로 보았다. 따라서 대다수의 여성 감염인은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보통의 주부라고 추정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보고서는 남성 HIV 감염인의 82%는 동성간 성접촉으로, 18%는 성매매 여성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보았다. 즉, 서울대학교 보고서도 대다수 남성 감염인은 동성애로 말미암아 감염되었다고 보았다.

서울대학교 보고서는 결론에서 고위험집단 중에서 남성동성애 집단의 추정 감염인이 71.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혔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에 의한 이성간 성접촉으로 국내의 많은 남성들이 HIV에 감염되고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

58) 양봉민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보고서, 2004년 11월, p11.

### 첨부 3

#### 남성 동성애자와 일반 남성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 비교

국내 남성 동성애집단 비율과 동성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비율로부터,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일반 남성에 비하여 몇 배인지를 알 수 있다.

전체 남성의 수 = M, 남성 동성애집단 비율 = x  
남성 동성애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의 수 = (1-x)M  
남성 동성애집단에 속한 사람의 수 = xM  
남성 동성애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 = p  
남성 동성애집단에 속한 사람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 = Np

따라서 'N'은 남성 동성애집단에 속한 사람이 남성 동성애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 남성에 비하여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몇 배 더 큰지를 나타낸다.

2011년 통계를 사용하여서 누적 남자 감염인의 42.7%가 동성간 성접촉으로 감염된 것을 이용하면,

$$(1-x)M \cdot p : xM \cdot Np = (1-0.427) : 0.427 = 0.573 : 0.427$$
$$N = [(1-x)/x] \cdot (0.427/0.573)$$

2003년 한국성과학연구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서울 부근의 남성의 경우에, 동성애자 비율은 0.2%, 양성애자 비율은 0.3%이었다. 따라서 남성 동성애집단 비율을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를 합한 0.5%로 잡으면,

$$x=0.005 \rightarrow N = [(1-0.005)/0.005] \cdot (0.427/0.573) = 199 \cdot (0.427/0.573) = 148$$

남성 동성애집단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 남성에 비해 148배가 크다.

최근에 청소년의 경우에는 58%가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걸리므로,

$$(1-x)M \cdot p : xM \cdot Np = (1-0.58) : 0.58 = 0.42 : 0.58$$
$$N = [(1-x)/x] \cdot (0.58/0.42)$$

10대 남성 동성애자 비율을 성인 남성과 같이 0.5%로 가정하면,

$$x=0.005 \rightarrow N = [(1-0.005)/0.005] \cdot (0.58/0.42) = 199 \cdot (0.58/0.42) = 275$$

10대 남성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275배가 크다.

## 첨부 4

###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국내의 통계

동성애와 에이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모든 에이즈 감염인이 동성애에 의해서 감염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동성애자이면 에이즈 감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에이즈에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다. 참고로 에이즈는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일으키는 질환이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누적 에이즈 감염인은 11,566명이다.<sup>5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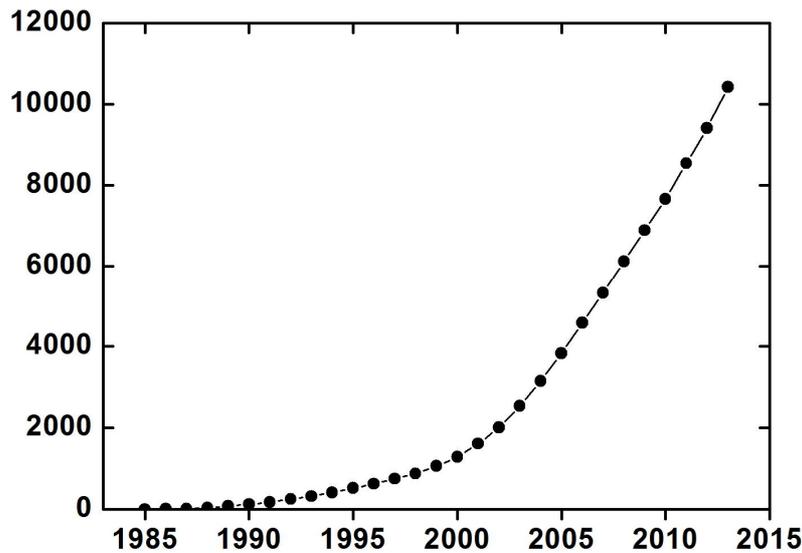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누적 HIV 감염자 수

그림 1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든 연도별 국내 HIV감염 발견현황을 보면 감염인의 수는 2000년 이후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알 수 있으며,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3년 11,566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지난 십년 동안 4배로 급증하였다.

에이즈와 관련된 국내 논문들이 에이즈 고위험군으로 남성 동성애집단과 윤락여성을 선택함으로써, 남성 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60)61)</sup> 여

59) 한국질병관리본부, 2013 HIV/AIDS 신고 현황 p8.

기서 남성 동성애집단(MSM: male having sex with male)은 남성 동성애자 뿐 아니라,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모든 남성을 포함한다.

1985~1992년 한국 국립보건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에이즈에 걸릴 확률(유병률)이 5.5%이므로, 동성애자는 일반인( $\approx 0.03\%$ )에 비해 에이즈 걸릴 확률이 약 180배이다.<sup>62)</sup> 참고로 일반인이 에이즈 걸릴 확률에 계산할 때에 일반인에 동성애자들을 포함하였으므로, 동성애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

동성애와 에이즈의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 외국 통계를 보면, 그림 2처럼 미국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의 1~3위가 남성 동성애집단(MSM)이고, 전체 감염자의 70%이다.<sup>6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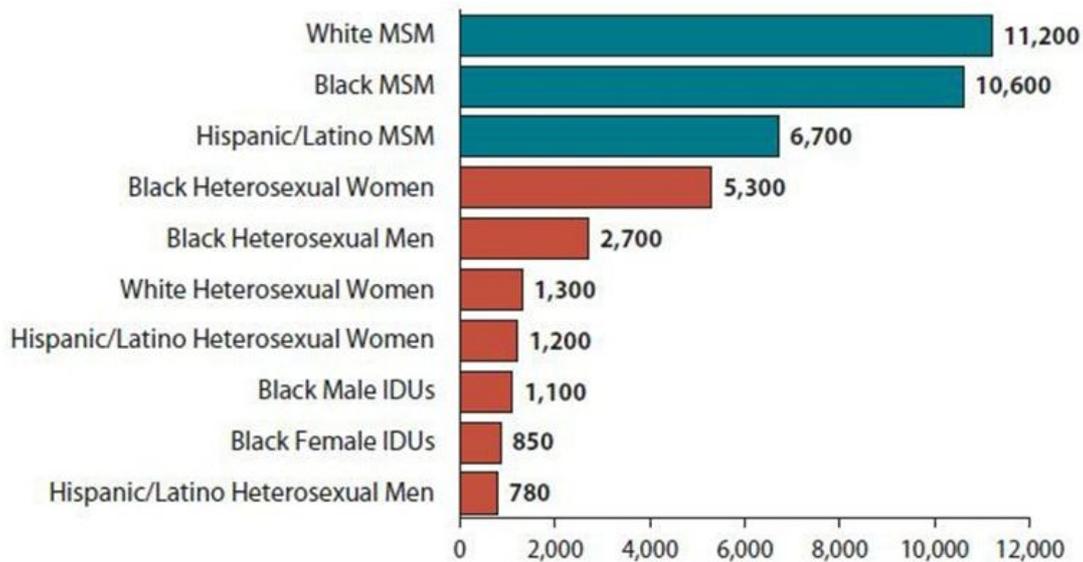


그림 2. 미국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한 에이즈 감염자 분포.

2007년의 유엔에이즈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에는 160만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고, 에이즈 환자의 절반 정도는 동성애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유엔에이즈는 “중남미 지역의 HIV 감염자는 현재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매춘과 동성애가 늘어날 경우 HIV 감염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60) 양봉민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보고서, 2004년 11월.

61) 고운영, 국내 HIV/AIDS 유병률 추계 및 예측과 역학적 특성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신희영, 우리나라의 2002년 HIV/AIDS 감염자 추정, 2003년 추계 예방 의학회 구연발표 자료.

62) 양봉민과 최운정, 한국에서 HIV/AIDS 감염의 경제적 영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 보고서, 2004년 11월, p9.

63) <http://www.cdc.gov/hiv/statistics/surveillance/incidence/index.html>.

다. 특히 유엔에이즈는 중남미 지역에서 동성애가 에이즈 환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sup>64)</sup> 또한 캐나다에서 신규 감염자 남성의 75%가 MSM이고,<sup>65)</sup> 프랑스에서 2011년 남성 감염자의 65%가 동성애 때문이다.<sup>66)</sup> 그리고 방콕에서 2010년 신규 감염자 50%가 MSM이고, MSM 중의 31%가 감염되었다.<sup>67)</sup> 2012년 아일랜드에서 HIV 진단을 받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은 166명이며,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최고의 수치이며, 2012년 아일랜드에서 HIV에 가장 많이 감염되는 이들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이다.<sup>68)</sup>

또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은 의학전문지 '랜싯'에 게재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간의 성관계를 통한 에이즈 감염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스페인, 칠레,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MSM의 HIV 유병률은 대략 15%이다.<sup>69)</sup> 또한 보고서는 똑같이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남성 에이즈 감염자와 미감염자가 항문성교를 할 경우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1.4%로, 이는 남녀가 정상적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질 때의 에이즈 감염률보다 무려 18배 높다고 밝혔다.

영국 에이즈 협회 2013년 추계학회 때 잉글랜드 공공보건국의 케빈펜튼 교수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이 증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보고를 하였다.<sup>70)</sup> 2012년 유엔에이즈 글로벌 보고서에 의하면, 그림 3처럼 남성 동성애집단의 HIV 감염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참고로 그림 3에서 보여준 일반인에는 남성 동성애집단도 포함되므로, 실제로 남성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다.

위의 통계를 볼 때에 동성애가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이며, 동성애는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성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

64) 부산일보, 2007년 11월 21일.

65) <http://mitr.tistory.com/479>.

6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90655>

67) <http://mitr.tistory.com/775>.

68) <http://mitr.tistory.com/610>.

69) 연합뉴스 2012년 7월 20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0/0200000000AKR2012072012810009.HTML>

70) <http://blog.naver.com/pshskr/220126352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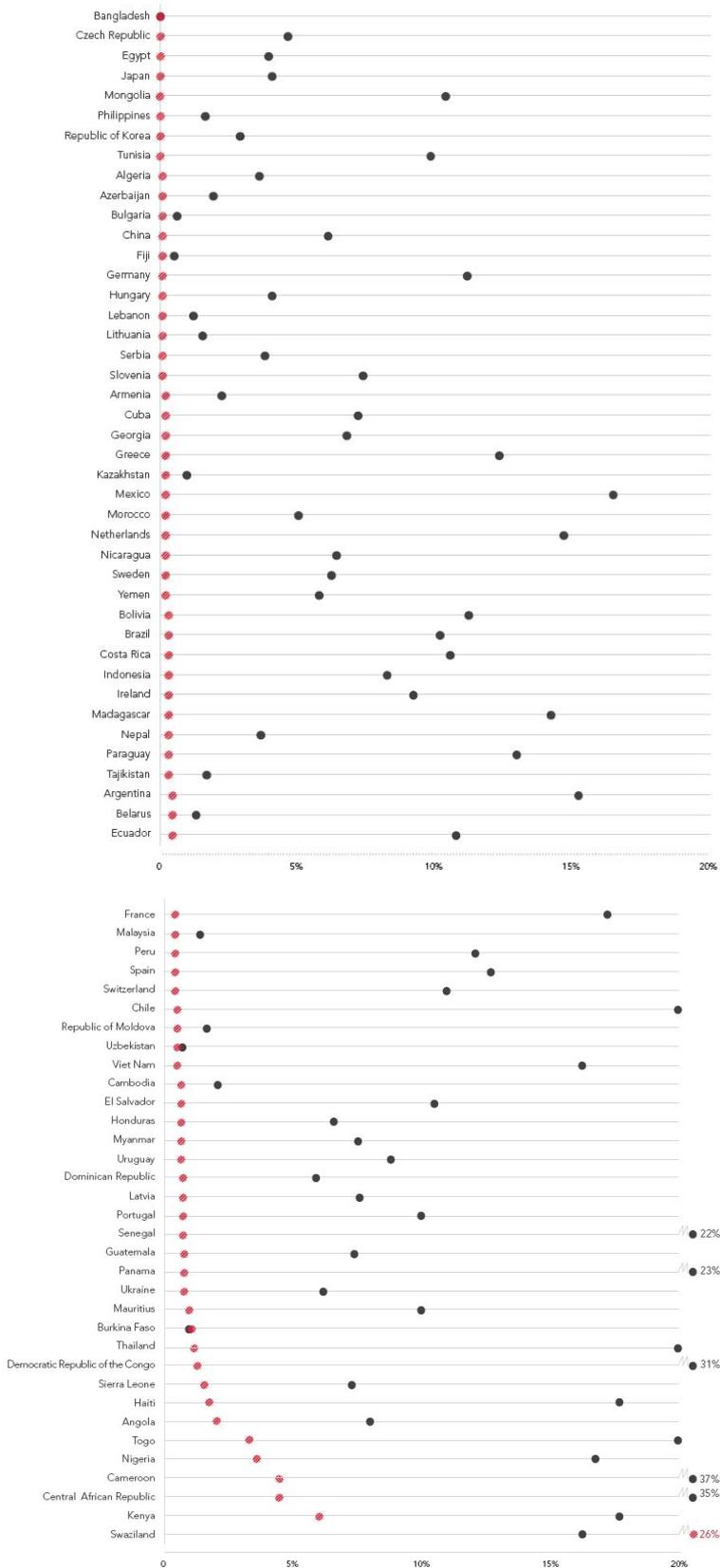


그림 3. 남성 동성애집단(검은 점)과 일반인(빨간 점)의 HIV 감염률

## 첨부 5

### 최근 동성애로 인하여 급증하는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자

최근에 동성애로 인한 한국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HIV)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자료로부터 내국인 15~19세의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은 2명, 2001년은 5명, 2002년은 2명, 2003년은 5명, 2004년은 7명, 2005년은 15명, 2006년은 12명, 2007년은 17명, 2008년은 20명, 2009년은 27명, 2010년은 26명, 2011년은 38명, 2012년은 31명, 2013년은 52명이다.<sup>71)</sup> 그림 1에서 2000년 이전에는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거의 없다가 2000년 이후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2000년에 2명에서 2013년에 52명으로 14년 동안에 26배 증가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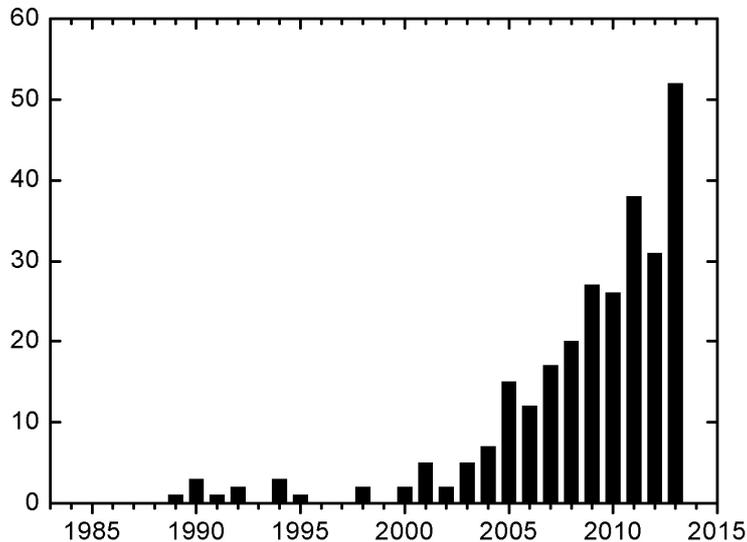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내국인 15~19세 남성 에이즈(HIV) 신규 감염자 수.

한국질병관리본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8년까지의 10~19세 누적 에이즈 감염자는 125명이며, 감염경로가 확인된 109명 중 이성간 성접촉 46명(42%), 동성간 성접촉 52명(48%) 수혈·혈액제제 10명, 수직감염 1명이다.<sup>72)</sup> 2011년까지의 10~19세 누적 감염자는 214명이며, 감염경로가 확인된 173명 중 이성간 성접촉 73명(42%), 동성간 성접촉 89명(51%), 수혈·혈액제제 10명, 수직감염 1명이다.<sup>73)</sup> 위의 결과로부터

71) 질병관리본부, 2013년 HIV/AIDS 신고 현황 p13

[표 4] 연도별, 연령별 HIV/AIDS 내국인 신고 현황, 1985~2013 (남자).

72) 손숙미 전 국회의원 블로그(18대 국회의원) (2009-09-28)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onsm2351&logNo=50088141396>

73) 한국질병관리본부, 2011 HIV/AIDS 신고 현황 연보 p20

표1. HIV 감염 내국인 성별, 연령별 감염경로(1985~2011년).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증가한 감염자 수를 살펴보면, 이성간 성접촉이 27명(42%)이고, 동성간 성접촉이 37명(58%)이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동성애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의 증가로부터 청소년들은 동성애를 미화하는 영화와 드라마,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과서에 의해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고 쉽게 동성애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4년에 동성애표현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후에 동성애자 인터넷 사이트가 활성화되고 개수가 증가하여, 청소년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쉽게 동성애를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2004년부터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게 된 요인이라고 본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자료로부터 내국인 20~24세의 남성 HIV 감염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0년은 15명, 2001년은 21명, 2002년은 19명, 2003년은 45명, 2004년은 40명, 2005년은 50명, 2006년은 62명, 2007년은 49명, 2008년은 59명, 2009년은 70명, 2010년은 77명, 2011년은 108명, 2012년은 129명, 2013년은 145명이다. 그림 2에서 2000년 이후로 청년 에이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2000년에 15명에서 2013년에 145명으로 14년 동안에 약 10배 증가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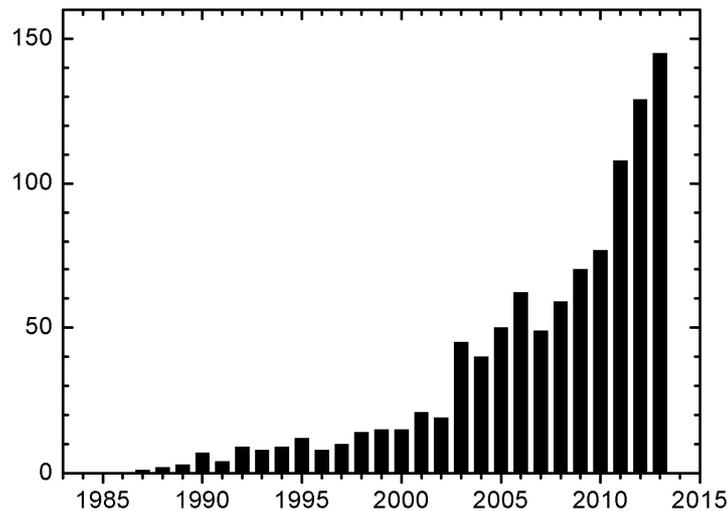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내국인 20~24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

한국질병관리본부의 2013년 자료로부터 내국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를 연령별로 보면, 2000년, 2005년, 2010년에는 30대가 가장 많다가 2013년에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10대와 20대의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청소년 및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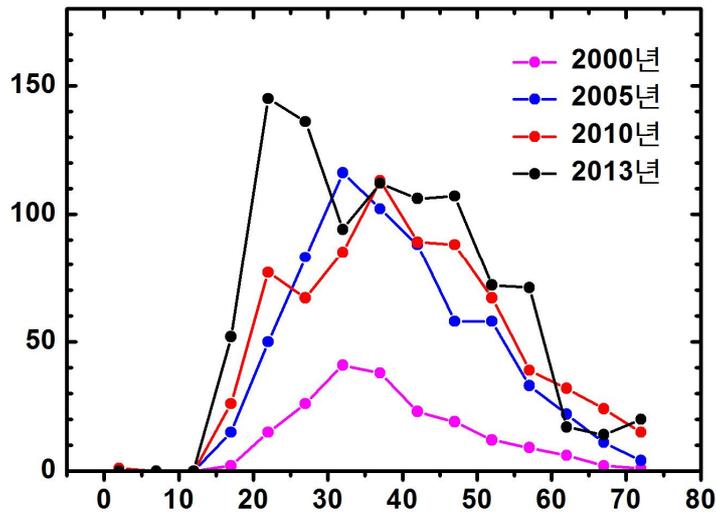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내국인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

표 1.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만든 2011년 젊은 남성 HIV 감염경로 현황.<sup>74)</sup>

감염경로	13 ~ 19세		20 ~ 24 세	
	감염자수(명)	백분율(%)	감염자수(명)	백분율(%)
동성 간의 성접촉	1,664	92.8	6,354	90.8
마약 사용자	23	1.4	117	1.7
동성 간의 성접촉 및 마약 사용자	37	2.1	232	3.3
이성 간의 성접촉	67	3.7	294	4.2
합계	1,794	100	6,998	100

위의 표에서 미국 13~24세 남성 에이즈(HIV) 감염자의 94~95%가 동성애로 감염되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한국 청소년 및 청년들이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와 같은 동성애가 가지는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한국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동성애로 말미암아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동성애를 하도록 청소년 및 청년들을 유혹하는 환경과 문화를 막지 않으면, 청소년 및 청년 동성애자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시급히 학교 교육 등을 통하여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려 주어서 동성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무비판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의 TV드라마, 영화 등을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보여 주는 현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하루 빨리 이러한 잘못이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지식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에이즈로부터 지켜야 한다.

74) [http://www.cdc.gov/hiv/pdf/statistics\\_surveillance\\_Adolescents.pdf](http://www.cdc.gov/hiv/pdf/statistics_surveillance_Adolescents.pdf)